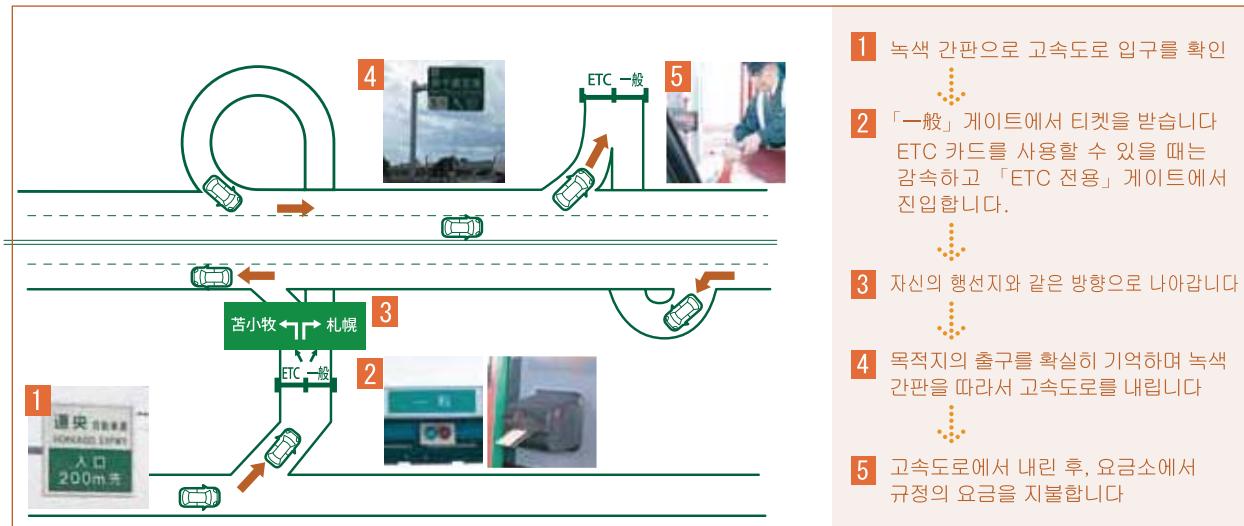


3-3 고속도로를 이용합시다!

홋카이도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많고 교통량이 큰 거리를 여러개 횡단하는 루트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용합시다.

1. 자신의 현재 위치와 2.입구의 위치와 3.출구의 이름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입구는 어디?

「신치토세 공항 IC」 등, IC(인터 체인지)라고 불리는 입구로 들어갑니다. 일반도로의 도로 간판은 모두 「청색」이지만, 인터 체인지의 장소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표시를 목표로 주행합시다.



어느 게이트를 통과하면 되나요?

입구는 일반용과 ETC 용, 그리고 경용이 있습니다. ETC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청색에 「ETC 전용 레인」에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녹색에 「일반 레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게이트를 통과한 후, 길은 두방향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려는 방향의 레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시는 「도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시나 종점의 IC의 위치를 확인합시다. 만일, 가려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다음 IC에서 고속도로를 내린 다음에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 카드란,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의 전용 결제카드로서, 지불자를 식별하여 등록을 마친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부터 요금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카드입니다.

ETC 전용 레인은, ETC 카드를 탑재한 차량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의 렌터카 회사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ETC카드의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ETC 카드의 예
고속인 CARD
「E-NEXCO pass」

삿포로시내의 균일 요금구간은 선불제!

삿포로시내의 IC입구에는 티켓 발매기가 아니고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간 균일요금(보통차 410엔)을 선불로 내는 시스템입니다.

*요금은 2017년 3월 시점



삿포로시내의 통행요금의 지불 구조는 이러합니다!

신치토세 공항 IC → 삿포로북 IC 지불은 1회 1,410엔

1 신치토세 공항IC에서 티켓 수령



2

삿포로 남본선요금소에서
1.410엔(보통차)
일괄 지불



3

삿포로북 IC로부터
그대로 내립니다

삿포로북 IC → 신치토세 공항 IC 지불은 2회 410엔+1,000엔=1,410엔

1 삿포로북IC에서
410엔(보통차)
지불



2

삿포로 남본선요금소에서
티켓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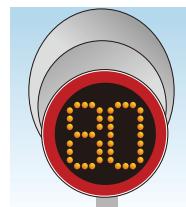
3

신치토세 공항IC에서
1.000엔(보통차)
지불

*요금은 2017년 3월 시점

【제한속도】

제한 속도의 표시는 가변식으로 되어 있어, 기상 상황이나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제한 속도가 바뀝니다. 아무 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법정 제한 속도 100km/h가 제한 속도입니다. 항상 제한 속도 표시를 확인하면서 운전합시다.



【요금소】

고속도로는 입구 게이트에 있는 발매기로부터 티켓을 가지고, 출구에서 관계자에게 티켓을 건네주고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불은 현금이나 이하의 신용카드를(사인 불필요) 사용할 수 있다.

JCB 카드, NICOS 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다이너스 클럽 카드, VISA 카드, 마스터 카드

주행 차선으로 달립시다(좌측통행)!

2 차선 주행의 고속도로는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좌측의 주행 차선에서 주행(좌측통행)하도록 합시다. 추월 시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규정을 아주 철저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월이 끝나면, 천천히 원래의 주행 차선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Hokkaido Expressway Pass라면 촛카이도의 고속도로를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
ETC를 이용하므로 요금소에서 차량을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안심입니다.

NEXCO 동일본에 「Hokkaido Expressway Pass」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한국어)
http://www.driveplaza.com/trip/drawari/hokkaido_expass/kr.html

[고속도로 통상 요금표]

http://www.driveplaza.com/trip/drawari/hokkaido_expass/pdf/normal_list_2015_kr.pdf

3-4 주유소의 이용방법

일본에서는 「가솔린 스탠드」 (GA-SO-RI-N SU-TA-N-DO)라고 불리웁니다. 「연료 종류(油種)」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에 의한 트러블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명칭을 기억합시다.

※ 약호: 주유소=GS 또는 서비스 스테이션=SS라고도 표기합니다.

주유소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 주변이나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간선도로에서는 잘 보이지만, 도시로부터 떨어지거나 교통량의 적은 도로에서는 극단적으로 적어집니다. GS는 트럭 등 대형차가 왕래하는 도시 주변의 2차선 이상 도로에 많습니다. 영업시간은 도시 지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교통량의 적은 지방은 오후 18시 이후나 토요일에는 쉬는 주유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료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급유를 권장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에 주의합시다.

이 마크를 표적으로

주된 주유소 체인의 마크



에네오스



이데미츠



쉘



액손모빌 그룹



고스모

주유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크게 종업원이 주문에 따라 급유해주는 「풀서비스형」과, 스스로 주유하는 「셀프 서비스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형이 휘발유 가격이 약간 저렴합니다. 풀 서비스형에서는, 「연료 종류」와 「양(리터)」 또는 「금액(엔)」을, 「Full Tank」의 경우는 「만땅(MA-N-TA-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스탭이 급유를 해주며 창을 닦아 주거나 쓰레기를 비워 주는 등 서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지도나 티슈 등 선물 서비스도 있습니다.

연료 종류는 세가지. 휘발유는 두 가지.

연료는 「고급 휘발유(하이오크)」「보통(레귤러)」「경유」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의 렌터카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으로 「보통(레귤러)」을 주유하면 됩니다. 디젤 엔진의 렌터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유는 절대로 넣으면 안되며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의 휘발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연 휘발유입니다.

● 연료(가솔린)의 종류

[셀프식 주유소에서의 급유시에는 가솔린 종류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일반적으로 「보통(레귤러)」은 옥탄가 90 전후의 가솔린이고, 「고급 휘발유(하이오크)」는 옥탄가 98~100의 가솔린입니다. 「고급 휘발유(하이오크)」는 주유소에 따라 연비향상이나 엔진의 열화 방지, 환경성능을 높이는 상품으로서 「프리미엄」「슈퍼」「F1」「비고」「슈퍼 매그넘」「세르퓨라」등의 독자적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연료 주입 노즐의 색으로 구별합시다!
보통(레귤러) 가솔린은 「빨강」

어느 주유소에서든지 연료
주입 노즐은 보통(레귤러)
이 「빨강」, 고급 휘발유
(하이오크)가 「노랑」,
경유가 「녹색」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영어표기	대만	홍콩	일본
Ultimate unleaded *	98무연휘발유	고급휘발유	하이오크(HA-I-O-KU)
Unleaded	92무연휘발유	보통휘발유	레귤러(RE-GYU-RA-A)
Diesel	디젤유	디젤유	경유(KE-I-YU)

* 주유소에 따라서 「Ultimate unleaded」는 「Plus unleaded」, 「Super unleaded」, 「Premium unleaded」라는 상품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프서비스로 가솔린을 넣어 봅시다!

이하는 일반적인 셀프서비스의 절차의 예입니다. ※주유소마다 시스템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일례로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급유후에 카운터에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후불식도 있습니다.



1

급유 펌프의 옆에 차를 주차합니다

차량의 급유구가 있는 쪽을 펌프로 향하여 차를 세웁니다. 급유구는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급유시에는 엔진을 끄기 바랍니다.

2

요금은 선불로 지불합니다

휘발유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선불로 지불할 때에는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1)현금……현금을 현금투입구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30리터를 넣고 싶은 경우에는 5,000~6,000엔 분의 지폐를 넣으면 급유 종료후에 그 당시의 단가×급유량(리터)을 계산한 후에 거스름돈이 반환구로부터 반환됩니다.

(2)신용카드……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슬릿에 카드를 「삽입하자마자 바로 뽑는 것」 혹은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카드 정보를 읽습니다.



3

연료 종류 및 양을 선택합니다

펌프의 표시버튼에서 「고급 휘발유(하이오크)」「보통(레귤러)」「경유」중 넣고 싶은 연료 종류 버튼을 누릅니다. 렌터카의 경우는 대부분이 「보통(레귤러)」을 쓰고 있습니다. 연료양은 두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ℓ」「20ℓ」「30ℓ」…「50ℓ」중에서 적당량을 선택하거나, 「¥1,000」「¥2,000」「¥3,000」…「¥5,000」중에서 적당한 금액을 선택합니다. 물론 「Full Tank」를 희망하는 경우는 「만땅(MA-N-TA-N)」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주유합니다

차량의 급유구 캡을 열고, 급유 펌프의 노즐을 들어 올려 앞부분을 급유구 안쪽까지 확실히 밀어 넣습니다. 보통 세가지 종류의 노즐이 있지만, 정확한 연료 종류의 노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료 종류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으며 색상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즐의 레버를 잡아 당기면 가솔린이 주유됩니다. 지정한 연료량의 주유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급유가 멈춥니다(노즐의 레버를 당길 수 없게 됩니다).



5

주유종료

노즐을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고, 급유구 캡을 닫습니다. 펌프의 표시부의 가솔린양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현금 거스름돈이 있는 경우는 반환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영수증은 자동적으로 프린트되어 나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가솔린은 위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주유중에 흡연이나 화기는 금물입니다! 가솔린에 불이 붙으면 큰 화재로 번집니다. 또, 정전기도 위험하니 급유전에 정전기 제거(제거 장치에 터치할 뿐)도 잊지 맙시다. 주유중에는 휴대 전화도 사용 불가.



3-5 겨울철 드라이브는 신중하게

홋카이도에는 스키·스노보드, 온천노천탕 등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든 의류나 도구 등 소지품이 많기 때문에 렌터카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겨울철 운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에는 스노타이어가 표준착용되어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압설노면」은 강설이 놀려 겹쳐지면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빙판길」은 눈이 일단 녹았다가 다시 얼어 얇게 얼은 상태를 말합니다. 빙판길은 매우 잘 미끄러집니다. 일단 미끄러지면 제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블랙 빙판길에 속지 맙시다!

빙판길 중에도 「블랙 빙판」이라고 하는 위험한 노면이 있습니다. 비나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은 경우에 생기는 노면이지만, 언뜻 보면 그냥 가볍게 쟁은 노면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제일 미끄러지는 노면입니다. 겨울의 「검게 빛나는 노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보라가 물아치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면의 눈이 강한 바람에 날리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맞은편의 트럭이 감아 올리는 눈보라에도 순간적으로 시야가 막힙니다. 이런 때는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묻혔어요!

깊은 눈에 들어가면 파묻혀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제설이 되어 있는 곳이나 차가 다닌 흔적이 있는 곳으로 주행하도록 합시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급브레이크」 「급가속」 「급핸들」 특히,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바퀴가 로크(멈춘 상태로 미끄러지는 것) 되면, 차가 제어 불능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천천히 달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스피드를 너무 내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거리를 확보합니다

앞에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의 교통상황을 파악합니다

겨울의 접촉사고의 상당수는 늦게 발견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앞차와 그 앞에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신경을 쓰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에 주의합시다.



엔진브레이크를 기억해 둡시다!

내리막길에서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스피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엔진브레이크란, 오토매틱 미션 「D : 드라이브」이 아니고 「S」(차종에 따라서는 숫자 「3」이나 「2」 등) 모드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 기어의 힘으로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변환은 속도를 낮추면서 천천히 실시하도록 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겨울철 드라이브의 사소한 지식

① 와이퍼가 얼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와이퍼는 앞유리에 얼어 붙습니다. 밤에는 와이퍼를 옮겨 두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맑은 날은 눈부셔요

겨울에는 햇빛이 지면에 가득한 눈에 반사되어 매우 눈이 부십니다. 선글래스를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③ 루프에서 눈덩어리가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요

차의 지붕에 쌓인 눈은 반드시 떨어뜨립시다. 주행중에 갑자기 눈덩어리가 앞유리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리면 시야가 막혀 버리기도 합니다.



④ 대체 어느 정도로 미끄러워요?

주위의 안전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저속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 그 날의 미끄러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 차가 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⑤ 앞에 차가 눈이 녹은 물을 튀깁니다

앞차나 맞은편 차가 눈녹인 물을 튀겨 앞유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 워셔액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합시다. 얼지 않는 전용액은 자동차 전문용품점이나 흡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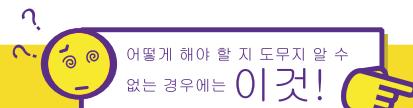
⑥ 백색의 눈길이라 위치를 모르겠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면의 눈이 강한 바람에 의해 훌날려 시야가 막히기도 합니다. 또, 맞은편 트럭이 감아올리는 눈보라에 의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속도를 낮추면서 천천히 운행하도록 유의합니다.



악천후에는 외출을 삼가하기를!!!

겨울은 지역에 따라 기상상황이 크게 변합니다. 휴대전화의 전파가 통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연락도 안되어 장시간동안 극도의 추위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생명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악천후의 경우에는 예정을 변경해서라도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도로 운전의 유의점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 홋카이도 환경생활부 「교통안전의 기초지식」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 한국어)

<http://www.pref.hokkaido.lg.jp/ks/dms/saftydrive/kor/index.htm>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만약 움직이지 않게 되면...

- ①자동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조난될 우려가 있다)
- ②비상등을 점등.(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차량이 알 수 있도록)
- ③경찰, 소방서, 로드 서비스에 구조를 요청한다. → P48 참조
- ④머플러 부근이 눈에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

